

TIPLONews 한국어본

2019 년 11 월호(K243)

K191030Y1

01 대만일본은「특허심사고속도로」 비망록에 서명

대만일본 관계협회(臺灣日本關係協會)¹⁾와 일본대만 교류협회는 2019 년 10 월 30 일, 대만과 일본간의 「특허심사 고속도로 (Patent Prosecution Highway, 약칭 PPH) 」라는 비망록을 체결, 대만 경제부 지재국²⁾과 일본 특허청 양국합작을 통하여, 특허출원인에게 보다 높은 효율과 신속한 심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만 일본간 2012 년 5 월 PPH 시험계획을 체결, 2014 년 개량형(PPH MOTTAINAI)으로 수정, 그리고 2017 년 시행기간을 3년 연장하였다. 2019 년 9 월에 이르러 끝났는데 대만 일본간 PPH 시행계획의 출원안건수는 도합 3,426 건으로 대만과 다른 나라 5 개국간의 PPH 계획과 비교시 그 수위를 차지하였다.

한편, 평균 첫통지 기간은 1.21 개월이고 평균 출원기간은 3.77 개월로 출원관련 효과가 현저했다. 대만일본간 PPH 시행 계획의 실시성과가 뛰어난 점을 감안하여, 대만 지재국과 일본 특허청은 시행계획이 완료된 후에도 2020 년 5 월 1 일부터 영구형 합작계획으로 개정, 대만 일본간 출원의 안정화에 도모하고 신속한 PPH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9.10)

역주:

- 1) 대만일본 관계협회(臺灣日本關係協會): 대만 외교부의 주도하에 운영되며 대만 일본간의 관계조정, 의사소통 및 협상을 중재하는 기관이다. 그리고, 협회의 일본측 대응 기관은 일본대만 교류협회이다.
- 2) 지혜재산국(智慧財産局)의 준말. 한국의 특허청에 상당하는 기관

K191030Y1

02 대만 일본 「설계특허 우선권 증명문서 전자교환」 비망록에 서명

대만일본 관계협회와 일본대만 교류협회는 2019년 10월 30일 대만과 일본 간 「설계특허 우선권 증명문서 전자교환」 비망록에 서명하였고, 대만 일본은 2013년 「특허 우선권 증명문건 전자교환」 비망록에 서명했으며, 적용범위는 발명특허 및 실용신안 특허출원안이고, 이를 실시한 이래 양국 출원인에게서 광범위하게 운용되고 있다.

서비스 대상의 확대를 위하여 대만 지재국과 일본 특허청은 디자인 특허를 우선권 증명문서 전자교환의 적용범위에 포함시켜서, 디자인 특허 출원인이 문서로 교환하는데 사용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게 하였고, 국제간 출원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우선권 증명문서 교환제도를 더욱 완전하게 하였다.

현재 양국 당사자는 적극적으로 시스템 개발 및 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1년 4월에는 정식으로 본 해당업무를 제공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19.10)

K191028Y2

03 연간 기념 추첨 행사가 상표권 침해로 고발, Poya 회사¹⁾ 승소

Poya는 자신이 개설할 Poya 생활관에서 2015년 9월 3일부터 10월 6일까지 「년간 세일 기념 Chanel 명품 추천」 행사를 가졌다.

프랑스 업체 Chanel은 Poya가 동의도 없이 권한부여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Poya 생활관의 광고, 간판, 상품카다로그 및 회사 홈페이지, 페이스북 팬그룹등에 Chanel 등 상표, 모양, 제품사진등을 대량으로 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고, 교역질서를 교란하였고, Chanel의 명예를 이용하였으며, 공정교역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만달러(TWD) 300만원²⁾을 요구하고, 사과문을 신문에 게재할 것을 요구하였다.

지재법원³⁾ 1, 2 심 판결에서 Poya 생활관의 간판 또는 광고 카다로그등에 첨부한 사진은 판매활동을 두드러지게 하기 위한 것이고, 광고중「판매를 촉진하는 상품」에「CHANEL」을 표시하지 않았고, 소비자는 상품과 장려품의 차이를 확실히 인식하기에, Chanel의 상표를 이용하거나, 상품의 명예를 손상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Chanel의 패소를 판결했다. Chanel은 제 3 심 최고법원에 상소했으나 상소는 기각되었다. (2019.10)

역주:

1. Poya: 寶雅國際股份有限公司 (Poya International Co., Ltd.)를 지칭.
2. 대한민국원(KRW)으로 1.16억원 상당금액
3. 지혜재산법원, 한국 특허법원상당.

K191028Y2

04「봄날」¹⁾ 상표 논란...지재법원²⁾, Ruisui 봄날 호텔³⁾ 패소 판결

Ruisui 봄날 호텔은 상표문제로 법원에 이의를 제기,「Ruisui 봄날 국제 Cosmos Spa 및 도면」의 상표가 지재국에 의하면 Taipei 봄날 호텔⁴⁾의「봄날」과 비슷하기에 말소했으나, 이에 반박하여 Ruisui 봄날 호텔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지재법원은 소비자를 혼동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1 심에서 패소, 본 건은 상소가능.

Ruisui 봄날 호텔의 주장에 의하면, 상표는 Ruisui의 설계도로, 「Ruisui 봄날 국제」및「CRAND COSMOS SPA」로 구성, 전체적 설계가 Taipei 봄날 호텔의「봄날」과 차이가 나고, 상표의 영어부분 또한 Cosmos 그룹⁵⁾ 또는 그 관계기업을 나타내기에 소비자의 혼란 및 오해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 Taipei 봄날 호텔은 단순히 온천숙박 및 식당으로 일식풍의 온천을 제공하는 반면, Ruisui 봄날 호텔은 복합식 고급 남유럽의 중세 장원풍인 리조트로서, 양 호텔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상, 경영형태가 명백하게

다르고 해당 시장 또한 중복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Taipei 봄날 호텔측 관계자는 Ruisui 봄날 호텔 상표의 가장 중요한 점은「봄날」의 두글자이고 양 호텔 모두 온천호텔 및 그과 관련된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소비자들은 같은 호텔로 오해하여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Ruisui 봄날 호텔은「Grand Cosmos Spa 및 도면」상표,그리고「Grand Cosmos Spa Resort Ruisui」,「Grand Cosmos Spa Resort Ruisui」등을 등록했지만, 판매 활동시에는 적극적으로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Ruisui 봄날」상표를 사용하였기에, 법원에 Ruisui 봄날 호텔의 소송을 기각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Ruisui 봄날호텔의 상표에 Ruisui 설계도, 「Ruisui」,「국제」 그리고「Grand Cosmos Spa」등 글자가 있지만, 상표중의「Ruisui」는 지명에 불과하다;「국제」는 일반적으로 국제적 기업 또는 국제적 영업을 가리키고; 「Spa」는 영업 종류의 설명이기에 주요한 식별부분은 여전히「봄날」을 포함한다. 게다가 상표의 영업항목에 대중탕, 사우나, 노천온천, 안마, 향기요법(aromatherapy)등 Taipei 봄날 호텔의 상표용도와 많은 부분이 유사하여, 혼돈을 초래할수 있다; 마지막으로 참작한 부분은 Taipei 봄날 호텔은 1975 년 설립, 1998 년 계속하여「봄날」,「봄날호텔」등 상표를 등록하여, Ruisui 봄날호텔이 상표 신청을 하기 전에 이미 상표등록 영업한 점을 고려하여,「Ruisui 봄날 호텔」의 패소를 결정했다. (2019.10)

역주:

1. 상표「봄날」은 중국어 상표「春天」을 의역한 것임.
2. 지재법원, 지혜재산법원(智慧財產法院)의 약칭. 한국 특허법원 상당.
3. Grand Cosmos Resort Ruisui Hualien (瑞穗春天國際酒店, 패소후 瑞穗天合國際觀光酒店으로 변경) 지칭.
4. Spring City Resort(春天酒店)을 지칭.
5. Cosmos Hotels & Resorts (天成飯店集團)을 지칭.

K191008Z8

**05 글로벌 투자촉진 포럼 : 경제부는 13 개의 외국인 투자자와 투자
의향서 체결**

경제부는 7 일에「2019 대만 글로벌 투자 촉진 포럼」을 개최하였는데「세계와 연결, 대만의 가치 제고」라는 타이틀을 축으로 5G, 사물 인터넷, AI, 빅 데이터, 전기 자동차 및 자율 주행 자동차와 같은 신흥 분야에 중점을 두었다.

대만 경제발전 및 성장에 공헌을 한 외국업체의 공로를 인정하기 위하여「10 대 외국인 공로업체상」을 수여하였으며, 13 개의 국제업체와 투자의향서(LOI)를 서명하였다. 향후 3 년간 투자금액의 합계는 대만화폐(NTD) 320 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1,345 개 이상의 국내 일자리 창출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13 개 투자의향서를 체결한 업체들중에 국가별로 보면 네덜란드, 일본이 각각 3 개 회사로 가장 많았고, 독일, 영국, 프랑스, 스위스, 스페인 미국 및 태국등 남아시아 국가가 차지했다; 산업별로 보면, 반도체재료 및 설비업체가 4 개, 재생에너지업체가 3 개, IC 설계가 3 개, 화학재료업이 2 개였다.

이번에 체결된 LOI 업체는 대만산업과 연결하는데 필요로 하는 관련성 기술 및 인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대만은 제조혁신 및 상품화에 뛰어나고, 게다가 산업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고급소재, 설비를 선도하는 업체가 투자할 동기부여를 하고 있다.

반도체 장비 및 소재방면에 있어서 세계적인 리소그래피 공정 장비 공급업체인 ASML 이 대만에 EUV 훈련센터를 설립, 고급장비를 갖추 예정이고; 반도체 제조설비 및 기술공급상인 SÜSS 는 최초로 대만에 코팅조립회사를 설립했다.

세계 1 위의 공업가스회사인 Air Liquide¹⁾는 장래의 발전 및 수요에

대비하여, 대만의 선진 과학기술 재료센터에 대한 투자를 증가할 예정이고; DSM²⁾은 고급 자외선 경화도료 기술발전에 중점을 두어, 향후 2 년동안 장화(Changhua)공장³⁾에 약 대만달러(TWD) 30 억원을 추가 투자할 예정으로, 영속적인 발전을 위한 특허와 고급 기술을 도입할 예정이다.

IC 설계의 경우, 세계 10 위권의 IC 설계 회사인 Dialog⁴⁾가 향후 3 년간 대만달러(TWD) 30 억원을 투자하여 대만 연구개발센터의 규모를 확대하고, 고급 연구개발인력 및 품질보증팀 인력을 늘리고, 대만의 1 차 공급업체와 협력하여 선진제조공정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세계 반도체 설루션업계를 선도하는 STMicro⁵⁾은 곧 대만의 연구개발팀의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대체에너지 방면에 있어선, 태국 최대 제당업체인 Mitosis⁶⁾와 대만의 TSEC⁷⁾가 합작하여 대만에 FSEC⁸⁾을 설립, 향후 대만 각지에 태양광발전소의 건립을 계획하고있다; 일본 저명한 정합상사인 Sojitz⁹⁾가 2020 년대만에 지상 태양광 발전시스템에 투자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일본의 저명한 전력회사인 JERA 또한 향후 3 년간 대만의 해안풍력발전소, 태양광 발전 및 액화천연가스등 에너지산업에 투자할 예정으로 투입금액은 대만달러(TWD) 100 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2019.10)

역주:

1. 중국어명 亞東工業氣體, 영어명 Air Liquide 을 지칭.
2. 중국어명 新力美科技, 영어명 DSM 을 지칭
3. DSM 의彰濱廠을 지칭.
4. 중국어명 戴樂格, 영어명 Dialog Semiconductor 를 지칭.
5. 중국어명 意法半導體, 영어명 STMicroelectronics 를 지칭.
6. 중국어명 兩儀集團, 영어명 Mitosis Group Limited 를 지칭.
7. 중국어명 元晶太陽能科技, 영어명 TSEC Corporation 를 지칭.
8. 중국어명 厚聚能源科技, 영어명 Formosa Sun Energy Corp. 약칭 FSEC 를 지칭
9. 일본어명 双日株式会社, 영어명 Sojitz Corporation 를 지칭